

포용적 노동시장, 사람중심 일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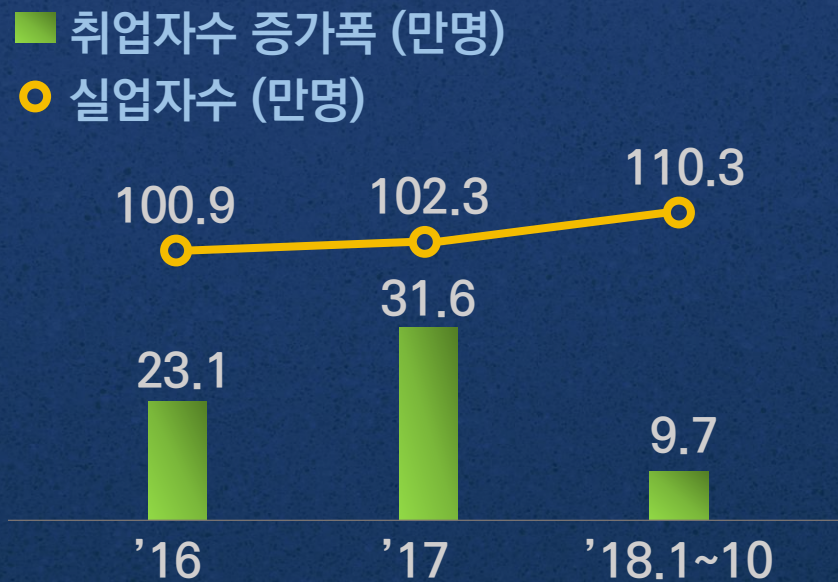
2018.12.11. | 2019년도 업무보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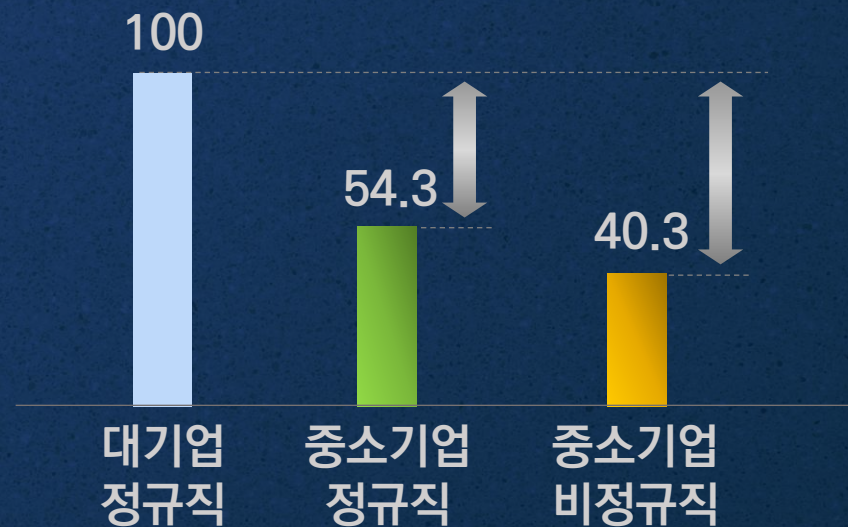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



그러나
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.



정규·비정규직 임금 격차 (%) ('17년, 노동부)



2019년도 녹록지 않습니다

- ❑ 저성장 기조, 자동차 등 제조업 침체
- ❑ 양극화, 저출산·고령화, 산업구조 변화
- ❑ 탄력적 근로시간제, 최저임금, ILO 핵심협약
- ❑ 특고·비정규직 관련 분류, 집회·농성 지속



노동시장에서
포용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여,

“함께 잘사는”
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.



포용적 노동시장 구축

일자리 기회 확대

- 1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
일자리 지원강화


일자리 질 향상

- 2 노동시간단축·최저임금
현장 안착
- 3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

4
포용과 책임의
사회적 대화

미래 대비 혁신

- 5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
- 6 미래인력 양성·직업훈련 혁신



일자리
상황 때문에
졸업이 두려워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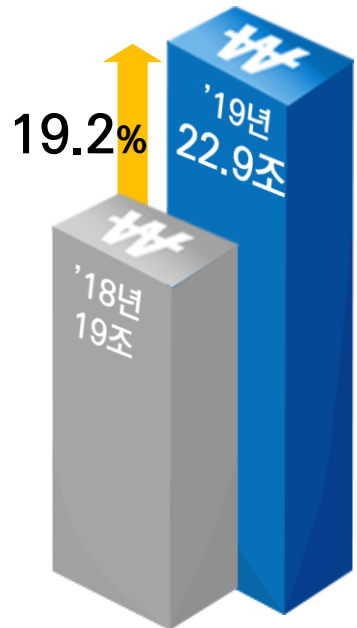
일도 하고
아이도 키워야...
너무 부담이에요.

역점 추진과제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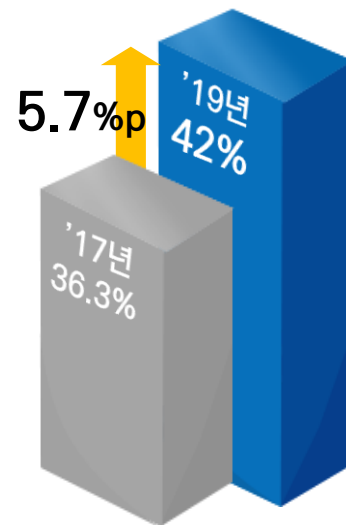
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

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, 더 다가가겠습니다.

일자리사업 규모



취약계층 참여비율



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(96만명)

3.2조원 ⇒ 3.8조원



직업훈련·고용서비스

9조원 ⇒ 11조원



실업소득 지원

7조원 ⇒ 8조원

철저한 성과평가·조기집행을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

일자리, **지역이 주도** 하고 정부는 지원하겠습니다.

지역 일자리

- ▶ 지역별 일자리 목표 공시 계획 수립 ('19.3월)
- ▶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
- ▶ 돌봄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육성

지역 거버넌스

- ▶ '지역노사민정협의회'를 중심으로 통합
- ▶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지원

지역과의 연계·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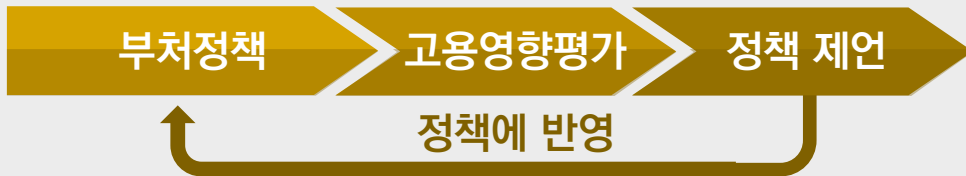
- ▶ 청년구직활동 지원시 지역-중앙정부 역할 분담
* (중앙정부) 졸업 후 2년 이내 + (자치단체) 장기실업자 지원
- ▶ 지역에서 설계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원

산업별 일자리창출력을 높이고,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산업별 일자리창출력 제고

▶ 산업별 고용영향 평가

* 스마트팜 육성, 빅데이터 등 대상 업종 확대



▶ 산업별 인자위 (17개 업종)

⇒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

주요 업종별 고용변동 대응



- ▶ 주요 거점별 신속대응팀 운영
- ▶ 고용유지 지원,
고용변동 파악·맞춤형 훈련



- ▶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
- ▶ 신규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
⇒ 고용증가 지원

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듬겠습니다.

청년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

여성

장애인

신중년

구직지원

청년구직활동지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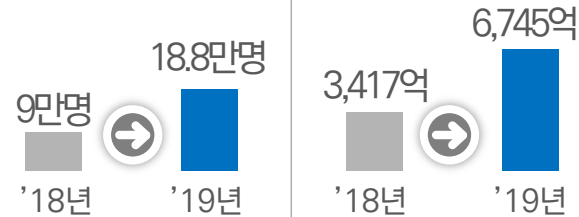


8만명
최대 300만원
1,582억 (신규)

채용 인센티브

청년추가고용장려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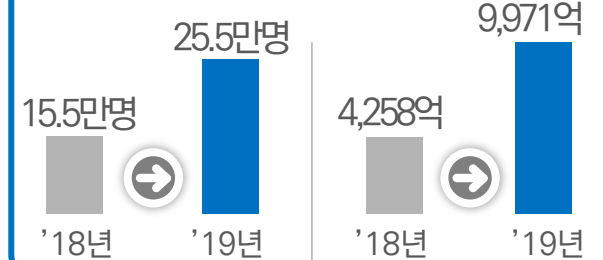
최대 3년간 2,700만원



장기근속 유도

청년내일채움공제

최대 3년간 3천만원



온·오프라인 청년센터
(youthcenter.go.kr)

청년정책 정보·전국의 취업준비 공간 정보 제공
실시간 상담 (일평균 1.5만명 방문, 1.2천명 상담)

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듬겠습니다.

청년

일하는 여성의 출산·육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

장애인

신중년

출산지원

- ▶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설



* 2.5만명, 150만원
(월 50만원 x 3개월)

- ▶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

* 5만명, 5일분 급여



육아지원

- ▶ 육아휴직 급여 인상

* 통상임금 40 → 50%,
상·하한액 20만원 상향

- ▶ 아바육아휴직 보너스 인상

* 상한 200 → 250만원

일자리 환경

- ▶ 남녀고용평등법 쏘사업장 확대 적용 ('19.1~)

- ▶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(AA) 적용사업장 확대



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듬겠습니다.

청년

여성

장애인에게 일자리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

신중년

노동시장 참여 지원

- ▶ 구직 포기 장애인에게
적극적 고용서비스 제공

* 비경활 중증장애인
9,600명 (시범사업, 26억)



훈련 및 취업지원

- ▶ 발달장애인·맞춤 훈련센터 확대

13 → 20개소
(134억원)

- ▶ 현장 적응훈련 등 지원

2.5 → 5천명
(117억원)

고용 유지 지원

- ▶ 근로지원인 확대

1.5 → 3천명
(555억원)

- ▶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

8천 → 1만점
(115억원)

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듬겠습니다.

청년

여성

장애인


신중년 인생3모작을 지원합니다

주된 일자리 고용안정

- ▶ 정년 60세 안착
- ▶ 계속 고용 사례 확산
 - * 계속 고용 노력 의무 부과 및 사업주 지원금 신설 검토

재취업 일자리 기회 확충

- ▶ 신중년 일자리 확대



2천명
'18년


→



27.5천명
'19년


 - * 사회서비스 일자리 포함
- ▶ 신중년 특화 직무능력 향상 지원
 - * 기술·기능직/사무·관리직

사회공헌 활동지원

- 

6.5천명
'18년

→



10천명
'19년

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다양화(2.5만명 ⇒ 3만명), 중소기업 지원 강화

노동시간 단축은
잘된 일 (63.6%)



최저임금
인상으로
사업하기
너무 힘들어요.



현장을
잘 모르는 것
같아요



역점 추진과제 2

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

노동시간 단축, **현장안착에 집중** 하겠습니다.

자율개선 지원



생산성 향상과 연계 추진



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선



-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
- 고용창출 장려금 확대
(’19년 347억원)

-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
-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

-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
- * 건강권 보장, 임금저하 방지, 단위기간 확대

노동시간 단축, **선제적으로 준비** 해 나가겠습니다.

특례제외 300인 이상 사업장 → 관계부처 합동 TF 지속 운영

노선버스 (국토부)



- ▶ 임금보전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
- ▶ 지자체의 인력 양성사업 지원

사회복지 (복지부)



- ▶ 보육교사 업무 대체인력 충원 ('19년 1.5만명)
- ▶ 근로형태별 가이드라인 마련

ICT·SW업 (과기부)



- ▶ 발주문화 개선*을 위한 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” 개정 추진
- * 적정기간 산정, 요구사항 상세화 등

50~299인 사업장

→ 300인 이상 사업장 현장 안착 경험 확산, 맞춤형 지원

최저임금,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
최저임금 준수지도

- ▶ 청소년 근로조건알리미 확대
- ▶ 소상공인단체 등과 협업, 자율개선 지원

소상공인 부담 완화

- ▶ 일자리안정자금 지원
- ▶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
(10인 미만 사업장,
월 210만원 미만 근로자 237만명)

합리적 제도 개선

- ▶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
- ▶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추진

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

- ▶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
• 13만원 → 15만원

- ▶ 지원대상 취약계층 확대
• 60세 이상 고령자,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

비정규직의
덧에서
벗어났어요.



갑질·임금체불
확실하게
없애주세요.



산재 사고 소식,
너무 안타깝습니다



역점 추진과제 3

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

직장 내 갑질·임금체불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

직장 내 폭행 등 괴롭힘

- ▶ 예방·대응 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
* 매뉴얼 및 취업규칙 표준안 배포, 심리상담서비스(EAP) 확대 및 내실화
- ▶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
- ▶ 직장 내 존중 문화 확산 노력

성을 이유로 한 차별

- ▶ 노동위원회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
- ▶ 고용상 성차별 조항의 쏘 사업장 적용



임금체불

- ▶ 체불노동자 생계 보장·보호 강화 추진
* 소액체당금 지원한도액 상향 (400 ⇒ 1,000만원) 및 수령 소요기간 단축 (7 ⇒ 2개월)
- ▶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강화 ('18년 7천 ⇒ '19년 1만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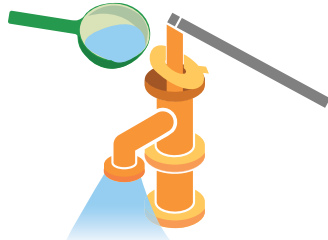
정규직 고용관행, 공정채용이 부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



▶ 공공부문 상시·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관행 확행

-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
- 표준인사 관리규정으로 체계적 인사관리 지원
- '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' 마련

▶ 민간부문으로의 자율적 확산 유도



공공

민간

▶ 편견 없는 채용·블라인드 채용 내실화

- 직업기초능력 중심 → 직무수행능력 중심

▶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「채용절차법」개정

- 채용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
- 직무 외 정보 요구 금지 등



공정
채용

안전하게 일 하고, 건강하게 복귀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.

산업재해 예방 강화
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추진
*특고·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등
- ▶ 추락 등 고위험분야 집중 지도·감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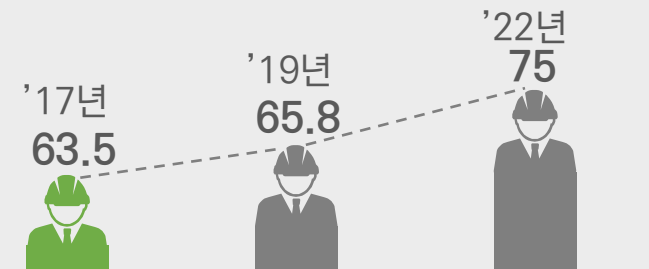
산재사고사망자(명)




안심 일터

산재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

- ▶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
• 1인 자영업자, 적용대상 특고직종 확대
- ▶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지원
• 원직복귀계획서 제출 등



산재환자 직장복귀율(%)



사회적 대화,
그들만의 리그
아닌가요?

사회적 대화,
정말 우리 사회를
바꿀 수 있나요?

왜 ILO 핵심협약을
비준하려고 하나요?

쟁점과제

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

사회적 대화, 새롭게 시작합니다.

다양한 주체 참여

- ▶ 청년·여성·비정규직·
소상공인·중소·중견기업
- ▶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('18.12월~)

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논의

- ▶ 국민연금·사회안전망·
노동시간·안전 등
- ▶ 격차해소, 비정규직 등

(노사) 역지사지 대화 문화
(정부) 합의사항 정책 연계

지역·산업별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
- 지역 노사상생형 모델(예: 광주형 일자리) 확산 -

작은 성과(Small Deal)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(Big Deal) 도출

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,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

단결권

- ▶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
공약위원안 발표('18.11.20)



* 강제노동 금지 협약:
관계부처 협의 중

단체교섭·단체행동권

勞

- 특고 노동기본권
- 교섭·쟁의 대상 확대
- 손배·가압류 제한

社

- 단협 유효기간 확대
- 사업장 점거 금지
- 대체근로 허용

노사참여·협력 강화

- ▶ 근로자대표제도 개선
- ▶ 일터혁신 확산 등



노사정, 양보·타협에 기반한 대화 참여
⇒ 합리적인 대안 마련

고용안전망에 대한
투자가
미흡하지는
않았는지?

고용센터를 가도
내가 원하는
일자리가 없어요.

• 청년구직자

저도 일하는데,
왜 고용보험 가입을
못하는거죠?

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신규발굴 과제

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

모든 국민의 **취업을 책임집니다.**



구직자

나에게 딱 맞는
일자리



구인기업

기업에 딱 맞는
구직자 매칭



안심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하겠습니다.

고용보험 적용 확대

- ▶ 특고·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
- ▶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

실업급여 보장성 강화

- ▶ 평균임금의 50% ⇒ 60%
- ▶ 30일 추가 지급 (최대 8 ⇒ 9개월)

고용 안전망

한국형 실업부조 도입('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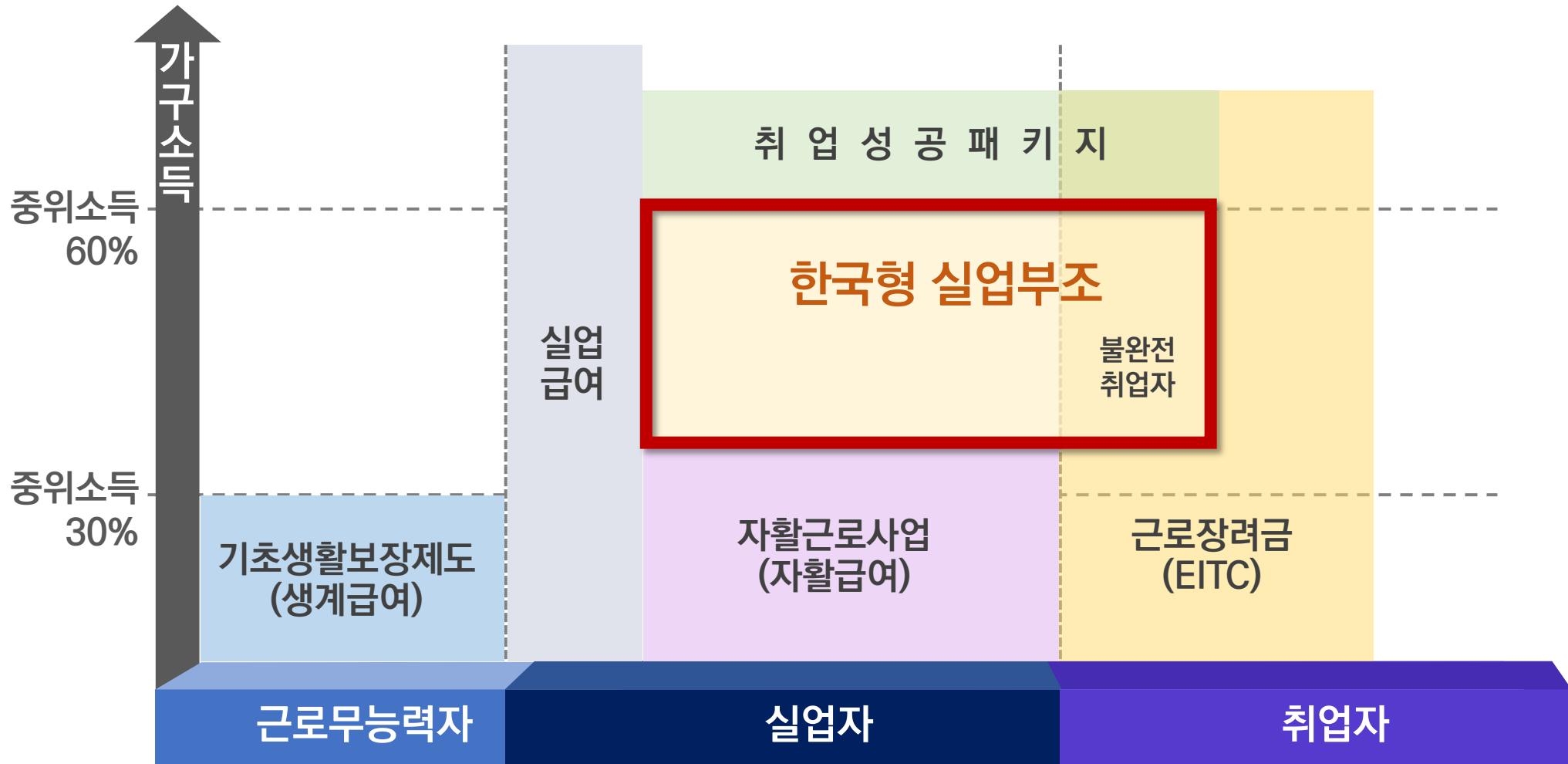
- ▶ 근로빈곤층의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
- ▶ 양질의 일자리로 상향이동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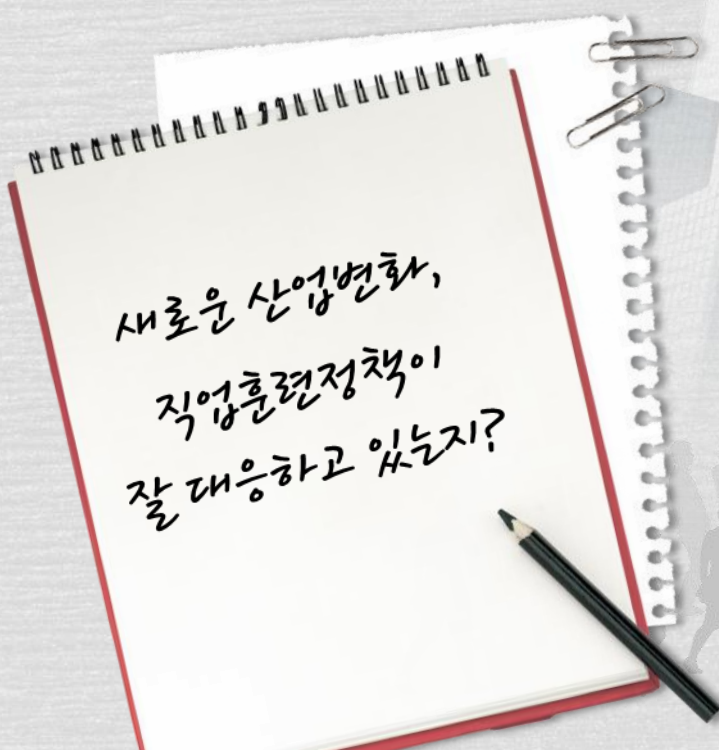
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('19년)

- ▶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 구직자 (1.4만명, 최대 90만원)

저변 확대,
사각지대
완화

보장성
강화





새로운 산업변화,
직업훈련정책이
잘 대응하고 있는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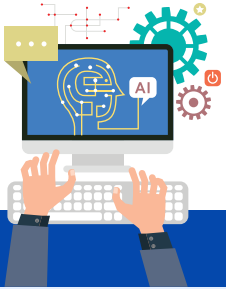
현장의
기술변화 속도가
너무 빨라요.

필요하다 생각하지만
막상 훈련을 받기가
쉽지 않아요.

신규발굴 과제

미래인재 양성·직업훈련 혁신

국민의 **신기술 적응력** 을 높이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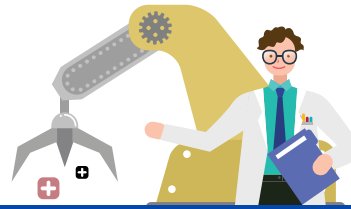


재직자

신기술 확산·직무 변화 적응 지원

- ▶ 스마트공장 확산 대응
 - 폴리텍 특화 캠퍼스 추진
- ▶ 중소기업 재직자의 디지털화 적응 훈련 활성화
 -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서의 신기술 콘텐츠 확대
- ▶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(10만명),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 등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

신기술
직업훈련
대폭 확대



청년 등 구직자

신기술·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

- ▶ 폴리텍 숙련혁신(Skill Innovation) 선도
 - 고학력 청년층 대상 '하이테크 과정' 확대
 - 제2융합기술원, 로봇특성화 캠퍼스 신설
- ▶ 대학 등 우수 민간기관 활용 신기술 훈련 확대
 - '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' 확대
 - 실업자훈련을 신기술 중심으로 지속 개편

* '18년 국기훈련의 빅데이터 분석 등 12개 직종 신설
- ▶ 융·복합 통합훈련장 '러닝팩토리'(4개소) 구축

변화에 맞춰 **직업훈련 인프라를 개선** 하겠습니다.

[산업계 수요에 맞춘 기민한 대응]



실무역량 평가 중심 전환

-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
- 기존 자격에 신기술을 접목한 '융합형 자격' 모델 마련('19)

현장 적용 애로요인 해소

- '품질관리 체계' 구축
⇒ 활용 만족도 제고

지역·산업계와 점점 강화

- 지역·산업인자위의 훈련공급 전략수립 및 심사참여 제도화

산업·훈련현장, 전문가 논의를 통해 “**직업훈련 혁신방안**” 마련·발표 ('19.1분기)

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고
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

포용적 노동시장,
사람중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
함께 나아가겠습니다.

